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2/04/01/JFYTFDBCA5DBRM62BWFQFNQVO4/

요약

허구연 신임 KBO 총재가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된 이야기는 떨어지는 한국야구 팬층과 그 이유다. 첫 질문부터 강정호 선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강정호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한 선수다. 하지만 잦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도 선고받았었다. 강정호의 복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도덕성은 실력과 관련 없다 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예시로 든다. 강정호의 복귀 이후 행보는 크게 상관없다. 하지만 복귀 자체로 “한국에서는 뭐든 버티면 된다”라는 무너진 원칙만이 남는다. 허 총재는 음주운전, 승부조작, 성범죄, 약물 복용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허 총재는 강정호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나의 생각

관중, 대중들이 주된 소비층인 스포츠, 배우, 가수, 정치인들은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등 불법적인 활동 이후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와 같은 말을 자주한다. 과연 대중들은 본업에 보답하기를 원할까? 적어도 나는 아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서 본업에 보답하는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한다. 이후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에 배신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반성해야한다.

또한 대중의 인기를 받는 직업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한다. 피츠버그 팬들 기억에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을 한 강정호 선수가 있는 나라로 기억하게 된다.

강정호의 복귀를 희망하는 몇몇 팬들이 “고작 음주운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나도 같은 표현으로 복귀를 반대한다. “고작 음주운전”도 지키지 못하는 선수가 무슨 공정 스포츠를 하겠냐는 것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못하는 선수가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하냐는 말이다.

허구연 KBO 총재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잃어버린 한국야구의 팬심이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진행도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선수들 대거 감염으로 인해 많은 팬들이 등을 돌렸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정, 깨끗한 한국야구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